

프랑스어 부사 ‘certes’의 발화적 개입 양상 연구*

서정연**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예비적 고찰
- III. ‘CERTES P’의 발화작용
- IV. 발화 좌표계 기반의 역동적 텍스트 그래프
- V. 나가는 말

국문초록

프랑스어 부사 ‘certes’에 드러나는 다성성 polyphonie, 즉 양보적 논증관계 argumentation concessive를 Culioli(1973)와 Desclés & Guentchéva(2002)에서 제안된 발화연산작용 opération énonciative의 틀 안에서 재조명하였다. 담지연산자 opérateur de la prise en charge와 발화연산자 opérateurs énonciatives간의 다층적 연산작용을 통해 프랑스 부사 ‘certes’의 양태적 의미 값을 규명하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선행 이론의 ‘다성성 polyphonie(Ducrot 1984)’, ‘거리두기 distanciation(Adam 1990, 1997)’, ‘발화적 이질성 hétérogénéité énonciative(Authier-Revuz 1984) 등의 메타 언어적 개념을 발화자의 ‘담지 연산 opération de la prise en charge énonciative’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인 발화연산작용의 ‘언어적 발현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발화연산작용을 기본으로 텍스트 의미 구조 형식화를 시도한 Chagnoux(2008)의 ‘발화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심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정되었다. 줄고를 심사해 주시고 냉철한 학문적 지적으로 논문의 질을 높여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서울여자대학교

좌표계 기반의 역동적 텍스트 그래프 *graphe de dynamique textuelle inter-référentielle*'를 빌어, 텍스트 담화 구조의 큰 틀 안에서 발화양태범주를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했다.

열쇠어 : 양보, 발화행위, 다성성, 대화주의, 언술주체, 발화연산, 정위 연산, 켈리오리 이론, 발화좌표계, 발화양태

I. 들어가는 말

다음 예문 (1)과 같이, 프랑스어 부사 '*certes*'는 많은 경우에 역접 접속사 '*mais*'와 함께 발화체 *énoncé*내에 화자 *locuteur*와 상대발화자 *interlocuteur*의 관점이 대립되고 해소되는 대화체 형식 *structure dialogique*의 구조를 지닌 '논쟁적 담화'를 이끄는 언어 기호로 분류되며, 그 의미 값은 '양보 *concession*'의 메타 언어적 개념¹⁾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certes*'와 함께 쓰인 문장은 '타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단언적 의미 값 *assertion*'을 갖고 ('그래, 날씨가 좋다'), '*mais*'에 의해 이끌어진 문장은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강한 논거를 제시하는 ('하지만,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스키를 타러 갈 수 없다)') 전형적인 대화체 형식의 논증 담화구조를 가진다.²⁾

(1) *Certes* il fait beau, *mais* j'ai mal aux pieds.

(그래), 분명히 날씨는 좋은데, (하지만) 난 다리가 아파.

1) “화자의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상대방의 논점을 일단은 그대로 수용해 줌으로써, 후에 문제의 본질에 접근했을 때 상대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설득시키기 위한 담화의 기법”(J. Mazareyrat et G. Molinié(1989)와 G. Molinié(1992) - 홍종화(1999:561)에서 재인용)

2) Ducrot(1984:229)

이러한 대립적 담화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다성성 polyphonie’, ‘거리 두기 distanciation’, ‘발화적 이질성 hétérogénéité énonciative’ 등의 메타 언어적 개념이 선행연구에서 제안되었다³⁾. 이 제안들은 모두 하나의 발화체에 나타나는 ‘타인의 말’의 발화적 개입 양상, 다시 말해, ‘이타성 altérité’을 언어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 안에서 프랑스어 부사 ‘certes’의 용례들에서 포착되는 ‘양보’의 담화구조를 Culioli(1973)와 Desclés(1980)의 발화작용이론 *théorie de l'énonciation*의 가설 하에 연구하고자 한다.

Vogüé(1992:80)는 언어학에서 흔히 통용되는 발화작용의 개념은 사실 상 다음 두 가지 정의가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발화과정 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발화자가 발화에 개입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발화체가 발화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발화작용의 개념은 다음의 Culioli(1990:26)의 의미화 작용의 정의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L'activité de langage ne consiste pas à véhiculer du sens, mais à produire et à reconnaître des formes en tant que traces d'opération (de représentation, référentiels et régulation). La signification n'est donc pas véhiculée, mais (re)-construite.”

인간언어의 활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세계를 표상하고, 지시하고, 구분짓는 일련의 연산작용의 흔적인 언어 형식을 생산하고 알아차리기 위함이다, 의미화 작용이란 결국 의미가 전달 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것이다.

3) 선행이론에 대한 개괄은 Somolinos(1995:52-56) 참조.

마찬가지로, Authier-Revuz(1984)는 ‘이타성 altérité’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발화작용은 소극적으로 이해되었음을 비판했다.⁴⁾ 그는 Bakhtine(1976)의 ‘대화주의 dialogisme’ 개념을 발화 차원으로 발전시킨 ‘메타발화 méta-énonciation’의 틀 안에서 ‘복합적 발화 작용 énonciation complexe’⁵⁾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본고는 ‘certes’에 드러나는 ‘양보’의 의미 가치는 앞서 언급된 ‘복합적 발화작용’의 언어적 발현(發現)이라고 보고, 이 의미 기능을 발화연산작용에 참여하는 하나의 발화적 양태 modalité énonciative 연산자 opérateur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이 부사의 다양한 용례 연구를 통해, Bally(1965), Anscombre(1981) 그리고 Adam(1990, 1997) 등은 이 부사의 ‘양보’의 의미를 파생적 의미로 정의한다.

본고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Desclés & Guentchéva(2002)의 가정을 받아들인다. 발화 행위를 ‘생각하는 주체 sujet pensant’의 ‘의도적 사고의 소통 communication de la pensée’으로 본 Bally(1965)의 가정에서 출발하여 모든 발화를 발화자 énonciateur가 자신이 발화하는 술부 개념 relation prédicative의 시·공간적 의미를 비롯해 그 발화의 진위(眞僞)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책임을 지는 담지(擔持) 작용 opération de prise en charge의 언어적 발현으로 간주한다. 다양한 발화적 양태 개념을 연산작용의 틀 안에서 재조명함으로써, Benveniste(1965) 그리고 Culioli(1973) 등에서 주장해온 ‘발화자의 주관성 subjectivité énonciative’ 개념을 발화자의 ‘담지 연산 opération de la prise en charge énonciative’ 관계로 분석, 다양한 발화연산자들의 ‘복합적 연산자의 언어적 발현 과정’으로 구체화 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프랑스어 부사 ‘certes’의 의미 값을 여러 용례와 선행이론의 제안을

4) Authier-Revuz(1984)

5) *ibid.* p.92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이 부사의 공통된 의미 값을 구별해 낸다. 다음에는 발화행위이론을 중심으로 프랑스어 부사 ‘*certes*’가 개입하는 발화작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발화에 드러나는 ‘이타성’의 개념은 발화자의 ‘담지 연산 *opération de la prise en charge énonciative*’ 관계로 분석된 ‘복합적 연산자의 언어적 발현 과정’으로 구체화 하여 설명될 것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어 부사 ‘*certes*’의 정확한 양태 범주를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동적 텍스트 담화 분석을 위해 Desclés & Guentchéva(2002)의 가설을 형식화 모델로 구현한 Chagnoux(2008)의 모델을 소개하고, 텍스트 담화구조 분석의 큰 틀 안에서 ‘*certes*’의 발화양태 범주를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II. 예비적 고찰

프랑스어 부사 ‘*certes*’의 ‘양보’의 의미 값은 많은 경우에 다음 예문 (2)-(5)과 같이, 역접접속사 와 함께하는 전형적인 구문 형식 ‘CERTES P MAIS/CEPENDANT/POURTANT/NÉANMOINS Q-분명히 P 하지만 Q’에서 나타난다.

(2) Ce n’est *certes* pas l’homme qu’il vous faut, *mais* il n’est pas si mal que cela.⁶⁾

(그래)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확실히 아니지만, (하지만)그렇게 나빠진 않아.

(3) Elmex est *certes* une pâte dentifrice qui coûte chère. *Mais* elle vaut largement son prix! Car elle a fait l’objet de recherches intensives et

8) Anscombre(1981:117)

bénéficie d'une association d'agents actifs exceptionnelle. [...] 7)

(그렇습니다), 엘멕스는 분명히 비싼 치약입니다. 하지만 이 치약은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약은 수 많은 연구와.....

(4) *Certes*, elle n'avait assurément aucune idée d'une force si merveilleuse, et *néanmoins* la voix inoubliée s'était tuée qui en disposait à son gré. (BERNANOS, La Joie, 1929, p.558)⁸⁾

물론, 그녀가 이렇게 대단한 힘에 대해 다행히도 어떤 의견도 없었지만, (하지만) 그 잊혀지지 않은 목소리가

(5) Car *certes* nous communiquons, *cependant* les mots de nos livres ne contiennent point le patrimoine. (SAINT-EXUPÉRY, Citadelle, 1944, p.583)⁹⁾

물론 우리가 의사소통을 했기에, (하지만), 우리 책에 쓰인 단어들이 문화재에 속하지 않았겠지.

위의 발화에서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의미 정보는 ‘*certes*’로 이끌어진 발화에서 ‘화자가 자신이 상대측의 입장 또는 주장을 이미 알고, 인지하고 있다’이다. 예를 들어, 예문 (2)의 ‘CERTES P(논항)’의 정보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찾던 사람이 아니다’이며, 예문 (3)에서는 ‘이 치약의 가격은 좀 높다’등이다. 더불어 각각의 정보의 출처는 그 의미에 따라 각각 상대발화자의 관점 (예문 (2)),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상식 (예문 (3)) 등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 값을 바탕으로 Ducrot(1984)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CERTES P’는 발화의 상호

7) Adam(1990:219)

8) TLF(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전자사전에서 발췌

9) *idem*.

주관적 intersubjectif 정보와 상대발화자의 논거에 대한 소극적 인정¹⁰⁾의 의미 기능이 역접접속사 ‘*mais*’ 등에 의해 도입되는 강한 논거¹¹⁾와 대립하는 논증 담화인 ‘양보’의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Adam(1997:8)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에 의해 부정되었다. 그는 이러한 양보의 의미 값은 이 부사의 ‘단언적 화행 acte assertif’의 의미 기능이 함께하는 역접 접속사와 갖는 파생적 의미 값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다음 예문 (6)과 같이, ‘*certes*’의 ‘양보’의 의미 값은 다음 [그림 1]의 스키마에서 표상하고 있듯이 ‘*mais*’가 갖는 ‘양보’의 의미 기능과 구별되지 않음을 주장한다.

(6) Dominique Perret, skieur extrême : «Nous ne sommes pas des kamikazes suicidaires : **Certes**, nous prenons des risques, **Mais** ils sont calculés». (Le Nouveau quotidien, 24.5.1994)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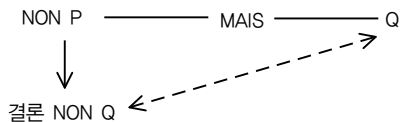
익스트림 스키선수, 도미티크 페레는 (말하길) : “우리는 자살특공대 가미가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지요. 하지만 그것은 계산된 것입니다”

위 예문에서 ‘*certes*’가 홀로 이끄는 문장은 앞 문장의 부정적 의미 값을 유추할 수 있는 논거의 기능만을 가진다고 본다. 다시 말해, ‘물론,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지요’의 문장은 다음에 오는 문장인 ‘우리는 자살특공대 가미가제가 아닙니다.’라는 결론을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의 ‘양보’의 의미 값은 다음에 오는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mais*’의 양보의 개념에 기인한 것이라고 제안한다.

10) Somolinos(1995 : 54)는 타인의 담화에 대한 발화자의 부분적 인정이라고도 언급함.

11) Adam *Op. Cit.* p.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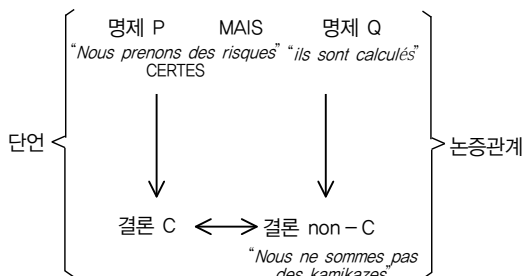
12) Adam(1997:8)



[그림 1] ‘mais’의 양보 개념의 스키마(Adam 1990:204)]

위의 [그림 1]에서 표상된 논증관계를 Ducrot(1980)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논증의 *mais*는 <p mais q> 구조에서 p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지되 그보다 더 강한 논증력을 가지고 있는 q를 제시하여 p의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예문 (6)의 논증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그림 2] ‘CERTES-MAIS’의 양보 개념의 스키마(Adam 1997:8)]

‘certes’에 의해 ‘단언’의 의미 값이 설정되고, 이는 ‘결론 C’의 값을 가지게 되며, 이때, ‘결론 C’를 부정할 수 있는 강한 논거인 Q가 접속사 ‘mais’에 의해 도입되어, ‘결론 NON-C’인 “우리는 자살특공대가 아니다 (*Nous ne sommes pas des kamikazes*)”의 결론이 유도된다. 이때, ‘양보’의 의미 값은 ‘certes’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mais’의 의미 값이며, ‘양보’의 의미는 파생적으로 발생된다.

따라서 다음 예문 (7)과 (7)'의 의미 차이는 'certes'의 유무에 따른 논증 담화적 차원의 차이보다는 'certes'가 가지는 '단언적 양태 modalité assertive'의 차원에서 조명해야 할 것이다. 다음 예문들은 모두 화자가 '로드리게즈의 키가 크지 않음 (non-P)'을 강하게 반박하는 논거를 이끄는 역접 접속사와 함께 '하지만 매우 힘이 세 (Q)'의 양보적 의미 값을 갖는다. 이때의 논증 담화구조는 역접 접속사 'mais'의 고유한 의미 값에 기인한다(non-P --> Q, [그림 1]). 또한 이러한 제안은 'mais'외의 다양한 역접 접속사와 공기한 문장에서 '양보'의 의미 값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예문 (8)을 통해 뒷받침된다.

(7) Rodriguez n'est pas grand, *mais* très fort.¹³⁾

로드리게즈는 크지는 않지만 (하지만) 매우 힘이 세요.

(7)' *Certes*, Rodriguez n'est pas grand, *mais* très fort.

물론, 로드리게즈는 크지(는) 않지만 (하지만) 매우 힘이 세요.

(8) *Certes*, il fait son régime sérieusement mais/pourtant/cependant il ne maigrit pas.¹⁴⁾

물론, 그는 신중하게 식이요법을 진행했지만 (하지만) 살이 빠지지는 않았다.

한편, (7)'가 갖는 구별된 의미 값은 화자가 상대발화자의 명제를 사실로 인정하는 '단언적 양태'의 태도에 있다. 다음 예문 (9)와 같이, 대화체 형식에서 홀로 쓰이는 'certes'의 용례를 통해 '단언'의 양태 값에 대한 이러한 논거는 뒷받침된다.

(9) - Le pouvoir présidentiel tire sa source, sa légitimité, dans le

13) Adam(1990:203)

14) Charaudeau(1992:517)

consensus populaire exprimé par le suffrage universel.¹⁵⁾

대통령의 권력은 보통선거에 의해 표현된 대중의 합의에서 그 원천과 정당성이 나오는 것이다.

- *Certes!* Et alors? (Faizant, *Le point*. octobre 1993)

(네가 말한 것은) 당연하지! 그런데?

Bally(1965:57)는 위와 같은 대화체 형식에서 홀로 쓰이는 ‘certes’의 용례를 통해, 이 부사를 ‘peut-être’, ‘naturellement’과 같은 차원의 ‘양태적 의미 기능’을 갖는 부사의 범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노렘 monorème’이라는 언어적 분석 단위를 제안하고, ‘certes’는 위의 예문 (9)와 같은 대화 상황에서 상대발화자의 의견이 사실임을 언급하고 동의하는 조응적 anaphorique 의미 기능을 가진 모노렘으로 설명한다. 더불어 이 언어 형식이 ‘삽입’ 혹은 ‘감탄’의 의미를 표현하는 담화적 기능을 갖는 요소 (예문 (10))¹⁶⁾로 보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certainement 확실히’, ‘il est vrai que ~는 사실이다’, ‘bien sûr 물론’, ‘effectivement 사실상’ 등과 등가의 의미 값과 기능을 가지는 ‘단언적 양태’부사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다음 예문 (11)의 예문에서 지지된다. 예문 (11)은 각각 유사한 ‘단언’의 의미 값을 가지는 양태 부사로 이끌어낸 세 개의 ‘단언문 phrase assertive’이 역접 접속사 ‘en revanche 하지만’와 함께 ‘양보’의 의미 값을 가지는 담화구조를 보인다.

(10) a. Paul a - malheureusement (ou : hélas) - échoué à ses examens.

폴은, 안타깝게도 (혹은 딱해라), 시험에 떨어졌다.

15) Somolinos (1995 :54)는 통시태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지지했다.

16) Adam (1990:215)

b. Vous avez – oh! sûrement – entendu parler de la chose.

당신은 – 오! 당연히 (분명히) –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11) *Certes*, les élus du Château font leur mea culpa. *Bien sûr*, ils prennent quelques mesures qui s'imposent. *Effectivement*, ils ne sous-estiment plus le désastre. *En revanche*, sont-ils «politiquement corrects»-avec eux-mêmes et les électeurs? Le courage, le vrai courage politique eût été de démissionner collectivement et de se représenter devant les urnes. (Le Matin, 5.3.1996)¹⁷⁾

물론, 그 성의 당선자들은 그들의 죄를 시인하겠지만. 당연히, 그들은 강요된 몇몇 임무를 수행한 것이겠지만. 사실상, 그들은 더 이상 그 재앙을 폄하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들은 유권자들과 그들 스스로에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인가? (중략)

다음 장에서 앞서 살펴본 Adam(1990, 1997)과 Bally(1965)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CERTES P(논항)’에 의해 이끌어지는 ‘단언적 양태’의 의미 값과 발화적 기능을 앞서 언급한 ‘발화연산작용’의 가설 하에 재조명하고자 한다.

Desclés & Guentchéva(2002:111)는 문장에서 포착되는 다양한 ‘양태적’의미는 사실상 복합적 차원의 발화연산작용의 결과로서 그 작용 단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분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 연산작용의 결과가 언어 기호를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CERTES P(논항)’에서 포착되는 단언적 의미는 다음 예문 (12)와 같은 단언문의 의미 값과 구별되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포착되는 의미 값은 발화자가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 자신의 발화가 사실임을 밝히는 단언문 유형이다¹⁸⁾. 그러므로 예문 (13)과 같이, 발화의

17) Adam(1997:8)

단언적 책임이 발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을 경우에, 가정의 형태 소인 조건법이 사용된다.

- (12) a. (En ce moment), il pleut. (지금) 비가 와 (비가 오는 것이 사실이다)
b. 내가 지금 본 것을 바탕으로, 내 발화가 사실임을 밝힌다.
- (13) a. Le président aurait reçu des diamants. 대통령이 다이몬드를 받았
겠지.
b. 내가 전해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내 발화가 사실임을 간접적으로
밝힌다.

반면에 예문 (14)의 ‘CERTES P(논항)’에서 포착되는 ‘단언’의 의미는 발화에 대한 발화자의 태도, 양태적 판단을 드러내는 ‘발화 양태 modalité énonciative’의 차원이다. 다음 예문 (14)의 경우에는, 앞서 예문 (12)-(13)과 달리, 발화의 진위에 대한 발화자의 책임 여부를 묻는 단언적 의미가 아니라, ‘이 발화는 사실이다’를 ‘사실로 인정하는’ 발화자의 발화에 대한 태도 즉 양태가 그 의미 값이 된다.

- (14) a. Certes, il pleut. 그래, 비가 와.
b. Certes, le président aurait reçu des diamants. 그래, 대통령이 다
이아몬드를 받았겠지.

다음 장에서 발화연산작용의 이론을 적용해 앞서 살펴본 단언의 의미 차이가 연산작용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증명해 볼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CERTES P(논항)’의 단언적 의미는 ‘CERTES P(논항)’에서 ‘P’의 구문 유형에 따라 세분하여 기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구문의 단언적 양태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행이론의 다양

18) 이러한 의미의 형태적 실현의 예는 Desclés & Guentchéva(2002:86)

한 메타 언어적 개념들은 발화연산작용이라는 이론적 틀 안에서 일괄적으로 규명되며, 용례 간의 상이한 의미 개념들이 객관적 기제를 이용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Ⅲ. ‘CERTES P’의 발화작용

이 장에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CERTES P(논항)’의 두 유형, ‘CERTES P(논항) MAIS Q’와 ‘CERTES(절대적 용법)’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양태적 의미를 발화작용이론을 통해 기술한다. 이에 앞서, 몇 가지 이론적 가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담지(擔持) 작용과 정위(定位) 작용

Brunot(1926)는 “모든 문장은 화자의 판단, 감정, 의지 작용 표지를 내포한다. 이것은 다양한 언어적 현실을 통해서 언어의 하부구조가 되는 문법관계의 망을 수식하거나 양태화한다”고 주장한다. 즉 “언어외적 사실들이 화자의 ‘주관성’을 통해서 여과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Brunot(1926)의 개념은 Bally(1965)에서 그대로 계승되어, “모든 문장은 생각을 전달한다. 그 생각은 객관적 표상 *représentation*에 대한 주관적 반응이다. 따라서 문장은 그 의미 구조에서 의미, 기억, 상상력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표상 즉 언표 *dictum*와 화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양태 *modus*를 내포한다”¹⁹⁾ 이러한 Bally(1965)의 가설을 바탕으로 Desclés & Guentchéva(2002)는 다음의 ‘기본 발화 작용 공리 *schéma minimal d'enonciation* : (공리 1)’를 제안한다.

19) 김종을(1996:832)에서 재인용

[공리 1 : 기본 발화 작용 공리, 담지 작용]

a. DIS((ce qui est dit)) JE, JE = 발화자 (énonciateur)

a'. JE DIS ce qui est dit, «ce qui est dit» = dictum, JE DIS = modus

a''. 연산자 'JE-DIS (modus)'는 '말하여진 것 (dictum)'을 피연산자로 갖는다.

위 공리의 핵심적인 개념은 발화자의 '담지 작용'을 표상하는 담지 연산자 opérateur «JE-DIS»이다. 여기서, 'JE'는 발화자 énonciateur를, 'DIS'는 발화 작용의 술부 연산자 opérateur verbal d'énonciation를 각각 가리킨다. 자세히 말하자면, 연산자 «JE-DIS»는 술부관계인 «ce qui est dit» (말해진 것)를 피연산자 opérande로 가지는 발화자의 담지 작용을 표상한다.

이러한 발화 작용은 발화자의 발화 공간 안에 술부 관계를 위치시키는 발화자 'JE'의 정위 작용 opération de repérag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발화공간은 추상적 공간으로 '발화자가 발화 행위의 순간에 외부의 세계와 무관한 고유의 시공간 référentiel énonciatif'안에 모든 지시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작용, 다시말해 '정위 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 (15)의 실제 주어인 인칭 대명사 'je 나', 'tu 너' 그리고 'il 그'은 각각 발화자 'JE'와 같음 identification(=), 다름 différenciation(≠) 그리고 관계없음 ruption(#)의 정위 작용의 결과로 구현된 언어적 표상이다.

(15) a. Je suis à Paris.

b. Tu es à Paris.

c. Il est à Paris.

위 각각의 발화에 대한 정위 작용은 다음과 같다.

- (16) a. (JE DIS:) je (trace de l'identification du locuteur avec l'énonciateur) suis à Paris
JE ("énonciateur") DIS : X est à Séoul ; <X:=JE><X:=je>
일인칭 주어대명사 'je'는 발화자와 화자가 '같음'으로 확인되었음을 표징(表徵)함
- b. (JE DIS:) tu (trace de la différenciation du locuteur avec l'énonciateur) suis à Paris
JE ("énonciateur") DIS : X est à Séoul ; <X:≠JE><X:=Tu>
이인칭 주어대명사 'tu'는 발화자와 화자가 '다름'으로 확인되었음을 표징함
- c. (JE DIS:) je (trace de la ruption du locuteur avec l'énonciateur) suis à Paris
JE ("énonciateur") DIS : X est à Séoul ; <X:#JE-TU> <X:=Il>
삼인칭 주어대명사 'il'은 발화자와 화자가 '관계없음'으로 확인되었음을 표징함

이때, 모든 발화에서 발화자는 문장의 주어와 무관하게 그 발화의 진위를 담당하는 담지 작용과 그와 수반된 정위 작용의 연산자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다음에는 위의 두 가정을 바탕으로, 발화행위에 적용되는 발화 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화 행위에 관여하는 세 주체, 발화자 énonciateur와 화자 locuteur, 그리고 매개자 médiateur가 있다.

[공리 2 : 화자와 발화자 구별 공리]

a. DIS (DIT (ce qui est dit) X) JE, JE = 발화자 (énonciateur), X = 실제 발화자 (locuteur)

a'. JE (énonciateur) DIS : X (locuteur) DIT ce qui est dit

a". $\langle X \neq JE \rangle$: 실제 발화자 'X'는 발화자 JE에 의해 '다름'으로 정위된다.

위의 공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화의 진위를 담지하는 실제 발화자 (X)와 발화행위의 발화자 (JE)가 있다. 이는 위 [공리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술부 관계인 «ce qui est dit» (말해진 것)를 피연산자로 가지는 연산자 «X-DIT»의 일차적인 담지 작용과 다시 'X'의 담지 작용을 담지하는 연산자 «JE-DIS»의 이차적인 담지 작용을 통해 성립된다.

다음에는, 매개자의 경우로, 다음과 같은 발화공리로 매개자의 발화 작용을 표상할 수 있다.

[공리 3 : 매개자의 발화 공리]

a. DIS (DIT (est-vrai (ce qui est dit)) il existe un énonciateur indéterminé) JE

a'. JE DIS : (il y a quelqu'un dit : (ce qui est dit) est vrai)

다시 말해, 발화의 진위를 담지하는 발화자가 있으며, 이 발화자는 실제 발화자인 'JE'와 '관계없음 #'의 정위 작용을 갖는다.

다음은 앞서 살펴본 발화 공리를 중심으로 'certes P mais Q'와 'certes (절대적 용법)'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단언'의 의미를 갖는 언술 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2. ‘CERTES(P)’의 단언 양태

앞서 언급한 대로, 일반적인 단언문 *assertion* 이란 다음 예문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화자가 술부 내용의 진위에 대해 직접적인 담지 작용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때 《사실이다 (*est-vrai*)》라는 연산자가 도입된다.

(17) a. « $2 + 2 = 4$ »

b. 단언문 : 나, 발화자는 « $2 + 2 = 4$ »이 사실임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러한 발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발화공리로 정의된다.

[공리 4 발화 공리 : 단언문]

- a. DIS (*est-vrai*(ce qui est dit)) JE
- b. JE DIS : (ce qui est dit) est vrai
- c. (ce qui est dit) est vrai selon moi
- d. j'affirme ce qui est dit.

나는 ‘말하여진 것’이 ‘사실임’을 담지한다.

이러한 단언문은 담지자의 유형에 따라 일반적인 진리에 관한 단언문 (*assertion universelle*), 집합적 단언문(*assertion collective ou communautaire*), 개인적 단언문(*assertion individuelle*), 확인된 단언문(*assertion de constat direct*) 그리고 맥락이 있는 단언문(*assertion contextualisée*) 같이 하위 구분 된다. 집합적 단언문과 맥락적 단언문은 각각 담지자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전자의 경우는 어떤 집단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 후자는 맥락에 의해 발화된 정보가 ‘진실’임이 담지되는 것을 일컫는다²⁰⁾.

Desclés & Guentchéva (2002:111)는 발화적 차원과 담화적 차원의 발화작용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발화 행위에는 발화자가 ‘말하여진 것’의 실현 actualisation의 진위에 대한 담지작용과 구별되는 ‘양태적 판단’을 담지하는 담화적 차원의 발화행위가 있다고 보는 본다.

Parret (1976:47)는 양태이론의 네 층위를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제 1 층위는 고전적인 문법적 접근인 어휘적 층위, 제2층위는 양상을 명제의 진리치를 규정하는 명제적 층위, 이 명제적 양상은 진리 aléthique, 인식 épistémique, 의무 déontique 등이 있다. 제3층위는 수행적 동사 형식이 발화문의 의미내용을 규정하고 수식하는 양태 연산자로 사용되는 발화 내적 층위이다. 제 4층위는 ‘il est bien 바람직한’, ‘il est souhaitable 바람직한/déplorable 불쾌한’ 등의 경우와 같이 이 세 층위와 중첩되는 가치론적 axiologique 층위가 있다”²¹⁾ Parret의 가정과 같은 맥락에서 Desclés & Guentchéva는 다음과 같이 양태적 판단의 발화 행위를 분류한다.

- (i) 인지적 양태(modalités épistémiques-aléthiques)
- (ii) 평가적 양태(modalités appréciatives)
- (iii) 명령, 요구, 약속, 질문 등의 상호 발화 주관적 양태(modalité inter-énonciateur)

또한, 다음과 같은 발화 공리(공리 5)를 제안한다.

[공리 5. 발화 공리 : 양태적 판단]

DIS (opérateur modale (est-vrai (DIT «ce qui est dit») X)) JE

이때, 담지 연산자 ‘JE-DIS’는 술부 관계에 대한 양태 연산자의 작용을 최종적으로 담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예문(18 (2))의 예문의 경우

20) Desclés & Guentchéva(2002:85-90)

21) 김종을(199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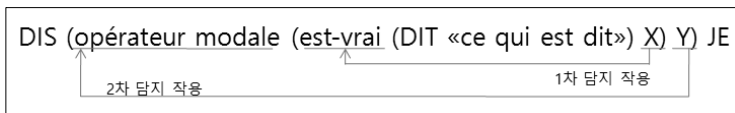
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는 술부 관계의 실현에 대한 ‘사실임’에 대한 담지가 아니라, ‘화자(X)에 의해 말하여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로’ 판단하는 양태적 연산자 《사실이다 (est-vrai)》에 의한 작용이다. 따라서 ‘certes’와 맥락에 따라 대치될 수 있는 어휘들로서 다음과 같은 인식양태 부사들이 가능하다. 부사들은 다음과 같다. ‘*certainement* 당연히’, ‘*à coup sûr* 확실히’, ‘*en vérité* 사실상’, ‘*bien sûr* 물론’, ‘*évidemment* 분명히’²²⁾

(18(2)) Ce n'est **certes** pas l'homme qu'il vous faut, **mais** il n'est pas si mal que cela.

(그래)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확실히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게 나쁜진 않아.

(18) ‘DIS (est-vrai ((est-vrai («c'est pas l'homme qu'il vous faut»)X) Y) JE

여기서 나타나는 발화자의 담지 작용은 앞서 예문 (17)의 단언문의 경우와 같이 술부 관계의 사실성에 대해 발화자의 직접적인 개입 engagement은 나타나지 않지만, 발화자가 완전히 그 진위에 대한 책임회피desengagement도 아니라는 점으로 이해된다. 이때, 발화자의 술부관계에 대한 1차적 담지는 발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certes’에 의한 2차적 담지가 이루어지는 단계적 연산이라고 본다. ([그림 3]). 그리고 이러한 단계적 담지 작용은 아래 살펴 볼 다양한 맥락 유형에 따라 세분된다.



[그림 3] 양태연산자의 단계적 발화연산

22) Adam (1990:213)

Garnier & Sitri (2009 :125)는 실제 용례 분석을 통해 ‘certes(P)’의 답화 맥락 유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답화 맥락 유형을 통해 ‘certes(P)’가 상호주관적 intersubjectif, 상호 담화적 interdiscursif 그리고 내부 발화적 intrasubjectif 의 답화유형을 드러낸다고 제안한다.

- (i) 보편적 진리(총칭적 담화 vérité générique)
- (ii) 평가어휘
- (iii) 숫자 등의 양화적 표현
- (iv) 양태서술동사(∼(일/할) 수 있다 혹은 ∼ 인 것 같다)
- (v) *il y a, il existe, il s’agit de* 등의 constat 확인을 의미하는 표현
- (vi) 발화자를 정확히 지칭하는 언어표지가 드러남
- (vii) 간접화법의 표지 혹은 총칭적 의미의 주어 ‘on 사람들은’
- (viii) 제한을 나타내는 언어표지

위의 특징들을 위에 제안된 담지자의 유형으로 다시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1) 개인적 단언 양태(modalité assertive individuelle) - (ii), (iv), (vi)
- (2) 집합적 단언 양태(modalité assertive collective ou communautaire) - (i), (vii)
- (3) 맥락이 있는 단언 양태(modalité assertive contextualisée) - (iii), (v), (viii)

위의 분류에 따라 [그림 3]의 ‘Y’의 담지 유형을 각각 제 삼자 단언 양태 유형(개인적 단언문 유형), 맥락이 있는 단언 양태 유형, 집합적 단언 양태 유형으로 나누어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단언 양태 유형(1) : 제 삼자 단언 양태 + ‘certes’

발화자 ‘JE’는 Y의 ‘관점’에 비추어 문제의 언술이 사실임을 담지하며, 이때, X는 발화자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제 3자이다.

[공리 6. 제 삼자 단언 양태]

(a) DIS (est-vrai(est-vrai (DIT (ce qui est dit))X)Y)JE

avec <X, Y ≠ JE> ou <X, Y ≠ JE>

(b) Je dis que Y dit “ce qui est dit est vrai”est vrai (selon Y)

나는 Y에 따라 말하여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로 판단한다.

이러한 담지자 유형을 갖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담지자가 가시적인 연표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19(1))의 경우에는 정확히 (P)가 상대발화자에게 담지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어적 정보가 없으나, 담화적 의미를 통해 가상의 상대발화자를 상정해 볼 수 있다.

(19(1)) Certes il fait beau (P), mais j’ai mal aux pieds.

(그래), 분명히 날씨는 좋은데, (하지만) 난 다리가 아파.

(20(18)) Ce n’est certes pas l’homme qu’il vous faut (P), mais il n’est pas si mal que cela.

(그래)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확실히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게 나빠진 않아.

(21(4)) Certes, elle n’avait assurément aucune idée d’une force si merveilleuse (P), et néanmoins la voix inoubliée s’était tue qui en disposait à son gré. (BERNANOS, La Joie, 1929, p.558)

물론, 그녀가 이렇게 대단한 힘에 대해 다행히도 어떤 의견도 없었지

만, (하지만) 그 잊혀지지 않은 목소리가

(22(5))Car *certes nous communiquons (P)*, *cependant* les mots de nos livres ne contiennent point le patrimoine. (SAINT-EXUPÉRY, Citadelle, 1944, p.583)

물론 우리가 의사소통을 했기에, (하지만), 우리 책에 쓰인 단어들이 문화재에 속하지 않았겠지.

2) 단언 양태 유형(2) : 맥락이 있는 단언 양태 + ‘certes’

이 유형의 발화는 다음과 같다. 발화자 ‘JE’는 맥락에 따라 말하여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로 판단한다.

[공리 7. 발화 공리 : 맥락이 있는 단언 양태]

(a) DIS (est-vrai(contexte (est-vrai (ce qui est dit))) DIT) JE

(b) Je dis que ce qui est dit est vrai dans un contexte selon une certaine modalité

정해진 맥락 안에서, 말하여진 사실이 옳다는 것을 옳다고 판단해 전달한다.

이러한 담지자 유형을 갖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경우는 담지자는 시·공간적 맥락이 되며, 가시적인 언표 혹은 비가시적으로 드러난다.

(23(3)) Elmex est certes une pâte dentifrice qui coûte chère (P). *Mais* elle vaut largement son prix! Car elle a fait l’objet de recherches intensives et bénéficie d’une association d’agents actifs exceptionnelle.
[...]

(그렇습니다), 엘렉스는 **분명히** 비싼 치약입니다. **하지만** 이 치약은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약은 수 많은 연구와.....

3) 단언 양태 유형(3) : 집합적 단언 양태 + ‘certes’

이번 경우는 어느 집단에서 ‘공유되는 지식’ ‘일반적인 진리’ 등에 의해 담지되는 단언 양태의 경우이다.

[공리 8. 발화 공리 : 집합적 단언 양태]

(a) DIS (est-vrai(DIT (est-vrai (ce qui est dit))n’importe qui (dans la communauté)) JE

(b) Je dis que ce qui est dit est vrai par la communauté (tout le monde) est vrai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 안에서, 말하여진 사실이 옳다고 전달한다.

이러한 담지자 유형을 갖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24) Disons, pour dire vite, que le capitalisme est responsable **certes** de la majeure partie de nos maux, **mais** qu’il n’en est pas l’unique responsable. (G. Halimi) ²³⁾

(25) Bien vieillir, ça se mérite [titre] 잘 늙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제목)
Pas question de voir s’installer les rides, se rouiller les articulations, s’enfuir la mémoire. **Mourir, certes, il le faut(Y), mais** mourir en détail, comme le disait Voltaire, non ! (Le Nouvel Observateur, 31 mai-6 juin 2001)²⁴⁾

23) Granier & Sitri(2009:131)

주름이 지고, 관절이 빼그덕 거리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은 안될 일이다. 물론 누구나 죽는 거니까 하지만 서서히 죽는 것, 볼테르의 말처럼. 그것은 아니야!

위의 예문은 각각 ‘자본주의가 지금의 우리의 악을 생산한 주범이다’(예문 (24))과 ‘인간은 죽는다’(예문 (25))의 사회적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지식을 수용하고 이를 옳게 답지한다는 의미 값을 갖는다²⁵⁾.

마지막으로, 다음 예문 (26)과 (27)에서와 같이, 실제 관찰된 사실에 대한 대답, 즉각적인 지각 등의 직접적인 관찰 *Constat direct*의 결과를 묻는 상황에서는 ‘*certes*’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certes*’가 발화 양태의 의미 값을 갖는다고 주장한 앞서의 논거들을 뒷받침한다.²⁶⁾

(26) - Jean est à la bibliothèque **장**이 도서관에 있지.²⁷⁾

- ? *Certes*. 물론.

(27) ?Ils (des skis) sont *certes* longs *mais* ils sont légers (Cojocariu 2004:207).²⁸⁾

스키는 길지만 가볍지.

지금까지 살펴본 발화연산이론은 Chagnoux(2008)의 형식 모델을 통해 텍스트 담화구조 분석을 위한 표상 기제로 구현되었다. 다음에서 이 모

24) *ibid.* pp.121-122.

25) Rossari(2008:363)

26) Cojocariu(2004:207)

27) 이 문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는 줄임표 ‘...’와 같은 문장부호와 함께, 특정한 맥락이 주어지는 경우에 가능하다. 즉, 실제 비꼬는 듯한 어조의 경우만 부분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Granier & Sitri *op. cit.* p.127

28) Cojocariu *op. cit.*

텔을 소개하고, 텍스트 담화구조 분석의 큰 틀 안에서 ‘certes’의 발화양태범주를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IV. 발화 좌표계 기반의 역동적 텍스트 그래프

담화 discours는 여러 개의 언술로 이루어진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때, 이 조직은 발화자에 의해 조직된다. 언술 요소 간에 응집성과 독립성을 연구하고 표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모델은 Culioli(1973)와 Desclés(1980)의 발화작용이론의 가설을 기저로 하여 텍스트 의미 구조 형식화를 시도한 Chagnoux(2008)의 ‘발화 좌표계 기반의 역동적 텍스트 그래프 graphe de dynamique textuelle inter-référentielle’이다. 이 모델은 발화자의 발화 공간이라는 추상적 가상적 공간 안에서 조직되고 구성되는 발화 작용을 가시적으로 표상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잠재력을 내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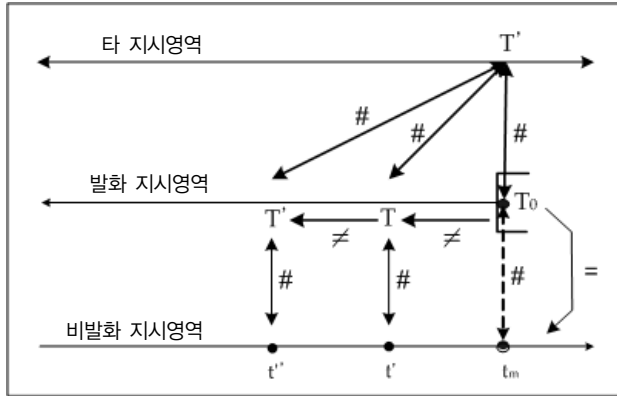
이 모델은 주요한 가정은 첫째, 위상 공간 lieu topologique²⁹⁾과 발화자의 정위 작용의 역동성이며, 두 번째는 다층적 발화좌표계의 담지 작용이다.

1) T₀의 정위작용

발화 좌표계는 위상 모델의 핵심 개념으로 자연언어로 표상되는 시간 개념의 발화자 중심 구조를 표상하기 위해 수학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T₀를 중심으로 모든 언술은 직·간접적인 정위 연산작용을 거쳐 발화 지시영역에 위치되며, 이러한 발화자의 인지적 공간 espace cognitif은 발화

29)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Desclés(1980)등에서 적용된 이론으로 자세한 논의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자세한 논의는 Desclés(1980) 참조.

지시영역을 중심으로 위계적인 관계 relation hiérarchique를 형성한다. 이때, T_0 는 발화과정사행 processus énonciatif의 마지막 순간으로 모든 정위 연산의 중심이다.



[그림 4] 발화좌표계의 정위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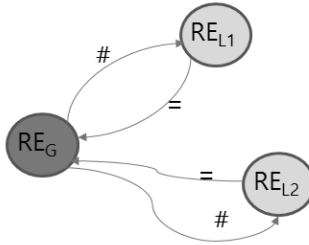
2) 발화 좌표계(référentiel énonciatif)의 구조

위 [그림 4]에서 살펴본 T_0 의 정위작용의 기본적인 체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발화좌표계를 정의한다.³⁰⁾

- les référentiels énonciatifs 발화좌표계 (noté RE) ;
- les référentiels possibles 가능성좌표계 (noté RP) ;
- les référentiels mentales 인식적 좌표계 (noté RM).

발화좌표계는 T_0 를 중심으로 사건과 상태를 정위하는 층위이며, 이때 발화좌표계는 담지작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괄적인 발화좌표계 (RE_G)와 국부적인 발화좌표계 ($RE_{L0, \dots, n}$)로 구분한다. 이를 그래프로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30) Desclés(2010), Chagnoux(2008)



[그림 5] : REG와 REL(Chagnoux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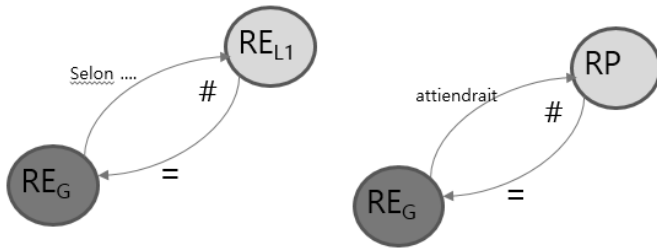
정위 작용을 통해, 모든 발화는 발화자의 정위연산에 의해 발화공간 (담화 공간)에 위치하며, 이때의 역동적 연산 작용은 위의 그래프 형식으로 표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텍스트의 그래프 표상은 다음 [그림 6]과 같다.

(28) Depuis le début de la guerre, plus de 2070 roquettes sont tombées sur le nord d'Israël. Selon les estimations en Israël, la moitié des habitants de cette région, soit 800.000 personnes, l'ont fuie pour le centre et le sud du pays. Dans les villes qui ont été très gravement touchées, ce chiffre atteindrait 60 ou 70 %, par exemple à Nahariya et à Kiryat Shmona.

위의 텍스트에서 일단 다른 발화좌표계를 상징하는 언어적 표지들에 표시하고 각각의 좌표계를 적어보았다. 첫 번째 표지인 'selon les estimations en Israël' 이스라엘의 통계에 의하면'에 의해 국부적 발화좌표를 두 번째 표지인 'atteindrait'의 가정법 표지로 가상시간좌표계를 가정할 수 있다.

두 개의 좌표계의 이동을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각각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construction dynamique du graphe associé à l'exemple (28).
(Chagnoux 2008)]

앞서 살펴본 양태범주도 위에서 소개된 좌표계 안에 포함시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세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양태범주의 개념에 대한 추상적 공간의 설정이라는 위상적 발상³¹⁾을 통해 발화작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V. 나가는 말

본고는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이타성 개념의 언어적 기술을 쾰리오리의 발화작용이론의 틀 안에서 설명해 내는 작업과 또 하나는 ‘단언’의 의미 값을 갖는 ‘CERTES (P)’의 정확한 의미 기술이었다. 이를 위해, Desclés & Guentchéva(2002)의 발화 작용이론 *théorie de l'énonciation*³²⁾의 틀 안에서 프랑스어 부사 ‘*certes* (확실하게, 확실하지만)’의 ‘양태’의 메타 언어적 개념을 재조명하였다.

프랑스어 부사 ‘*certes*’에 드러나는 다양한 발화적 양태 개념을 연산 작용의 틀 안에서 재조명함으로써, Benveniste(1966) 그리고 Culioli (1973) 등에서 주장해온 ‘발화자의 주관성 *subjectivité énonciative*’ 개념

31) Desclés(2010b)

32) Desclés(1980)

을 발화자의 ‘담지 연산 *opération de la prise en charge énonciative*’ 관계로 분석, 다양한 발화연산자들의 순차적 담지 작용에 대한 ‘복합적 연산자의 언어적 발현 과정’으로 구체화 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순차적 담지 작용에 대한 가설은 발화양태의 유형별 탐구를 통해, 후행 연구에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CERTES (P)’와 역접 접속사 ‘*mais*’의 논증 담화구조는 charolles(1986)의 가설대로 텍스트 차원의 연구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고의 마지막에 소개된 Chagnoux(2008)의 ‘발화 좌표계의 역동적 텍스트 그래프 *graphe de dynamique textuelle inter-référentielle*’를 활용한 텍스트 의미 구조 형식화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을, 「불어부사의 양상과 다성성」, 『불어불문학 연구』 33, 한국불어불문학회, 1996, 831-851쪽.
- 서정연, 「인용 동사의 언술 양태 유형 연구」, 『불어불문학 연구』 80, 한국불어불문학회, 2009, 536-570쪽.
- 이후인, 『한국어 양태접속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79-83쪽.
- 장인봉, 「상호대화적 대화주의 언어표지」, 『불어불문학 연구』 82, 한국불어불문학회, 2010, 357-393쪽.
- _____, 「괄호의 쓰기와 읽기 - 삽입 기호의 발화 작용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9, 2011, 한국기호학회, 385-414쪽.
- 정진아, 『연결사 mais의 논증 기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1쪽.
- 홍종화, 「양보구문의 해석」, 『불어불문학 연구』 38, 한국불어불문학회, 1999, 561-576쪽.
- Adam, J.-M., *Éléments de linguistique textuelle - théorie et pratique des l'analyse textuelle*, Liège, Mardaga, 1990, pp.191-226.
- _____, «Du renforcement de l'assertion à la concession : variations d'emploi de certes», *L'information grammaticale* 73, 1997, pp.3-9.
- Anscombre, J-CL., «Marqueurs et hypermarqueurs de dérivation illocutoire : notions et problèmes», *Cahiers de linguistique française* 3, 1981, pp.75-124.
- Authier-Revuz, J., «Hétérogénéité énonciative», *Langages* 37, 1984, pp.98-111.
- Bakhtine, M., *Le marxisme et la philosophie du langage*, 1977.
- _____, *Esthétique de la création verbale*, 1984.
- Bally, C., *Linguistique générale et linguistique française* [4ème éd.], Bernem Franke, 1965.
- Battistelli, D., & Chagnoux, M., «Représenter la dynamique énonciative et modale de textes», *Actes TALN'07*, 5-8 juin, Toulouse, 2007.
- Benveniste, 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Tome 1, Paris, Gallimard. 1966.
- Brunot, F., *La pensée et la langue*, Paris, 3e édition, 1926.

- Charaudeau, P., *Grammaire du sens et de l'expression*, Paris : Hachette.1992.
- Chagnoux, M., «Informer sans s'engager : variations de prise en charge énonciative dans les sujets d'actualité», *Corela* Volume 7. Numéro 1. 2008.
(<http://edel.univ-poitiers.fr/corela/document.php?id=2116>)
- Charolles, M., «La gestion des orientations argumentatives dans une activité rédactionnelle», *Pratiques n°49*, Metz. 1986, pp.87-99.
- Cojocariu, C., «Les adverbes de validation. Quelques hypothèses», in Rossari et al., *Autour des connecteurs*, chapitre 5, Berne, 2004, pp.183-214.
- Culioli, A., «Sur quelques contradictions en linguistique», *Communication* 20, 1973, pp.83-91.
- _____, «Valeur aspectuelle et opérations énonciatives ; l'aoristique», *Notion d'aspect*, David, J., et Martin, R., (eds), Klincksieck, Paris, 1980, pp.181-193.
- _____, *Pour une linguistique de l'énonciation. Opérations et représentations*, Tome 1, Paris, Ophrys. 1990.
- Desclès, J-P., «Construction formelle de la catégorie de l'aspect (essai)», *Notion d'aspect*, David, J., et Martin, R., (eds), Klincksieck, Paris, 1980, pp.195-237.
- _____, «Référentiels aspecto-temporels : une approche formelle et cognitive appliquée au français», *Actes du colloque Congrès Mondial de Linguistique Française*, Neveu F., et al. (eds), Institut de Linguistique Française, 2010, pp.1675-1696.
- _____, «Théorie des lieux abstraits», *Espace, Langues & Cognition, Colloque International*, 9~10 novembre, CNRS, Paris, 2010b.
- Desclès, J-P. & Guentchéva, Z., «Énonciateur, locuteur, médiateur», *Les rituels du dialogue*, éd. Aurore Becquelin et Philippe Erickson, L'Harmattan, 2002, pp.79-112.
- Ducrot, O., *Les Mots du discours*, Minuit, Paris, 1980.
- _____, *Le dire et le dit*, Paris, Minuit, 1984.
- Dufaye, L., & Gournay, L., *L'altérité dans les théories de l'énonciation*, Ophrys, Paris, 2010.
- Filippi-Deswelle, C., «Langues, Langage et Textes» (dirigée par J. Guillemin-Flescher), 2010, pp.37-55.
- _____, «Du locuteur au sujet énonciateur-locuteur», *Arts et Savoirs [En ligne]*, 2012, pp.2-20.
- _____, «Quand 'je' est un 'autre' ou quand though, marqueur de relance

- discursive (d'‘afterthought’), introduit une altérité intrasubjective», dans Dufaye, Lionel et Gournay, Lucie (dir.), *L'Altérité dans les théories de l'énonciation*, Paris, Ophrys, Coll. Garnier, S. & Sitri, F., « Certes, un marqueur dialogique ? », *Langue française* 163, 2009, pp.121-136.
- Maingneau, D., *Eléments de linguistique pour le texte littéraire*, Paris, Bordas, 1990.
- _____, *L'énonciation en linguistique française*, Paris, Hachette, 1991.
- Moeschler, J., & Reboul, A.,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e pragmatique*, Paris, Seuil, 1994, pp.323-347.
- Morel, M.-A. *La concession en français*. Ophrys, Paris, 1996
- Parret, H., «La pragmatique des modalités», *Langages* 43, 1976, pp.47-63
- Ranger, G., *Les constructions concessives en anglais*, Ophrys, Paris, 1998
- Rossari, C., *Le fonctionnement dialogique de quelques connecteurs*. Birkelund, M. et al. (eds). 2008, pp.361-375.
- Somolinos, A-R., «Certes, voire: l'évolution sémantique de deux marqueurs assertifs de l'ancien français», *Linx*, 32, Université de Paris X-Nanterre, 1995, pp.51-76.
- _____, «locuteur, énonciateur et prise en charge. Quelques remarques sur la polyphonie en linguistique», *La linguística francesa en España camino del siglo XXI*, María Luz Casal Silva et al. (eds.), 2000, pp.897-907.
- Sitri, F., «Dialogisme et analyse de discours : éléments de réflexion pour une approche de l'autre en discours», *Cahiers de praxématique* 43 [en ligne], 2004.
- Vogüé, Sarah de, «Culioli après Benveniste : énonciation, langage, intégration», *Lectures d'Émile Benveniste, LINX* 26, Nanterre, 1992, pp.77-108.
- _____, «Aux frontières des domaines notionnels bien que, quoique et encore que», *L'information grammaticale*, n°55, 1992b, pp.23-27.

Étude sur la représentation énonciative de l'adverbe 'certes' en français

Suh, Jung-Yeon

Ce présent travail a pour but de considérer la notion de l'altérité dans les langues, surtout dans les expressions avec l'adverbe modal, '*certes*'. Depuis Ducrot (1984), il l'a désigné le marqueur de concession avec le connecteur '*mais*'. Beaucoup de linguistes essaient de dégager leurs invariants sémantiques comprenant la notion de concession et celle de l'assertion mais d'une manière indirecte ou distanciée.

Ici, nous proposons tout d'abord de redéfinir la notion de l'énonciation au sens de Culioli qui le traite dans le mouvement processuel pas à celui de Benveniste tout en travaillant sur la relation intersubjective dans le discours. Avec la théorie de l'énonciation développée et établie par Desclés & Guentchéva (2002), nous réanalysons les énoncés de type 'CERTES (P)' et essayons d'identifier ses invariants sémantico-discursifs à l'aide des opérateurs énonciatifs. Dernièrement, nous présentons un système de graphe conceptuelle, 'le modèle de dynamique textuel de relations inter-référentielles' par Chagnoux (2008) afin de pouvoir analyser les différents niveaux du texte d'une manière opératoire pour une représentation formelle du discours.

Key words : concession, énonciation, polyphonie, dialogisme, sujet parlant, opération énonciative, opération de repérage, théorie culiolienne, référentiels énonciative, modalité énonciative

투고일 : 2016. 08. 10. / 심사일 : 2016. 08. 15. / 심사완료일 : 2016. 08. 31.